

2022.05.18



Daishin Research Center

# Daishin Research

## Morning Meeting Brief

2022.05.18



섹터	제목	작성자
자산배분	기준금리와 함께 올라가는 투자 선택의 기준	조승빈
<b>[산업 및 종목 분석]</b>		
옵트론텍	[1Q22 Review] 1Q 부진, 3Q 회복	박강호

# 자산배분

조승빈 seungbin.cho@daishin.com

## 기준금리와 함께 올라가는 투자 선택의 기준

- 연준이 코로나19 이후 2년만에 기준금리를 인상. 투자자의 입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글로벌 경기의 연락처 여부. 경기 연락처의 첫단추는 물가의 고점 통과와 소비심리 회복. 임금 상승에도 소비심리가 부진했던 이유는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
- 향후 소비심리 회복 여부에 있어 주목해야 할 지표는 컨퍼런스보드 현재상황 지수와 미국 민간부문의 자발적 퇴직률 1990년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국면에서 강세를 나타냈던 자산은 주식과 원자재. 주식에서는 신흥국, 섹터에서는 IT, 소재, 금융 등 경기민감 섹터, 스타일 측면에서는 모멘텀 전략이 양호한 성과를 기록. 원자재 시장에서는 팔라듐과 원유, 구리, 니켈, 알루미늄 등이 높은 성과를 기록했음
- 연준의 긴축정책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시중에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투자 자산의 선택도 신중해지고 있다. 그동안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의 빈자리를 실적의 안정성과 높은 수익성,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한 퀄리티 스타일이 채우고 있다.
-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설비투자(Capex) 수요를 주목. 특히,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한 설비투자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글로벌 Capex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기업과 인프라 투자의 핵심인 IT, 산업재, 그리고 산업용 금속에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
- 금리가 상승하면서 투자등급 회사채의 투자매력도도 높아짐. 현재 4.6% 수준인 장기 투자등급회사채 금리는 연말에 6% 후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 장기 투자등급 회사채는 인컴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예상

# 옵트론텍 (08221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0,000**

하향

현재주가  
(22.05.16)

**6,240**

## 1Q 부진, 3Q 회복

###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0,000원 하향

- 연결, 2022년 1분기 영업이익 -4.05억원(적전 yoy/적지 qoq) / 매출은 542억원(14.4% yoy/-3.4% qoq) 시현. 영업이익은 종전 추정을 하회
- 2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 생산설비의 베트남 이전 관련한 일부 생산차질로 비용 반영, 광학필터의 경쟁심화로 매출 정체, 마진율 하락에 기인
- 2022년 2분기 매출은 513억원, 영업이익 7.5억원으로 수익성은 전분기대비 개선 전망. 다만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이 중저가 중심으로 생산, 마진율 개선은 제한적으로 판단
- 2022년 주당순이익(EPS)을 하향, 목표주가는 10,000원(2022년 주당순이익 x 목표 P/E 28배 적용) 하향
- 투자포인트는 1) 2022년 하반기에 국내 OIS 시장에 신규로 진출 예상. 2) 2023년 자동차용 광학렌즈 매출 확대 예상.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통해서 북미 전기자동차용 업체로 공급이 증가 전망
- 영업이익은 2022년 49억원(흑자전환 yoy), 2023년 109억원(122% yoy) 증가 / 매출은 2022년 2,178억원(8.4% yoy), 2023년 2,436억원(11.8% yoy) 추정. 2022년 하반기부터 점차 매출과 영업이익은 개선 구간으로 진입 전망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